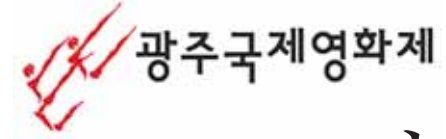


# 세계문학전집 열기 뜨겁다... 독자들의 선택은



## 장·단편 55편 상영

‘평화를 위한 희망’ 주제로 메가박스서 11월8일~12일

출판계에 세계문학전집 시장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독자 인구 급감과 종이책 시장 침체 예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출판사 창비가 세계문학전집 시장에 뛰어든다는가 하면, 기존 출판사들도 꾸준히 권수를 늘려 가는 등 공을 들이고 있어서다.

창비는 16일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시작으로 7개 언어권의 소설 10종(11권)을 1차분으로 내놨다.

오스트리아 작가 요제프 로트의 ‘라데츠키 행진곡’과 중국 여성 작가 덩잉의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 등 처음 번역돼 소개되는 책을 비롯해, 세르반테스의 ‘돈 께호테’,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에서 쓴 수기’, 카뮈의 ‘전락’ 등도 포함됐다. 창비는 앞으로 국내에 미번역된 걸작을 찾아 소개하는 비율을 30~40%로 유지하는 한편, 서양문학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인도, 중동, 아프리카 문학까지 아우르는 시리즈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7개 언어권별 대표시선과 프랑스 상징주의, 영국 낭만주의 시선집도 기획중이다.

이로써 세계문학전집 시장은 오는 11월 300권 출간을 앞둔 민음사의 독주 체제 속에 오는 31일 100번째 책을 내놓는 문학동네, 을유문화사, 시공사 등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세계문학전집 시장은 지난

창비-10종 출간하며 시장 진입

민음사-300권 번역 선두

문학동네·시공사 등 경쟁 치열

1998년 ‘변신이야기’를 첫 권으로 내놓은 뒤, 최근 296권째로 오르며 파묵의 ‘제브레트키와 아들들’을 번역, 출간한 민음사가 앞서 나가고 있다.

민음사는 지난 1998년 8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를 선보인 이래 2004년 100권, 2009년 200권에 이어 11월이면 300권 고지를 밟게 된다.

그동안 민음사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대표적 서구 문학뿐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제 3세계 작가까지 소개했고 오르한 파묵 등 현대 문학 거장까지도 아우르는 기획으로 꾸준한 독자층을 확보해왔다.

이어 문학동네가 2009년 ‘안나 카레니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노벨문학상을 받은 모옌의 ‘열세걸음’으로 100번째 책을 출간한다. 문학동네는 100권 출간에 앞서 온라인으로 ‘세계문학전집 미리보기’란 독자와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문학동네가 이 기간 내놓은 ‘1984’, ‘위대한 개츠비’, ‘안나 카레니나’, ‘숨그네’ 등은



창비는 ‘젊은 베르터의 고뇌’ 등 ‘창비세계문학’ 1차분 10종을 16일 출간했다.

중·고교생 자녀를 둔 40~50대 부모 세대와 20~30대 문학·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과거 원어주의·완역주의를 고집하며 세계문학전집으로 명성이 높았던 을유문화사도 이번 주 57번째로 안드레이 플라토노프의 ‘체첸구르’를 출간하는 등 지난 2008년 ‘마의 산’으로 재계했던 세계문학 고전 권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을유문화사는 특히 전문 번역가보다 해당 작가 전공자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다, 이번 체첸구르를 비롯해, ‘아쿠비안 빌딩’, ‘모스크바발 페투슈키행 열차’ 등 국내 독자와 처

음 만나는 초역작들을 꾸준히 소개해왔다. 시공사도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에밀 졸라), ‘인간실격’(다자이 오사무) 등 2010년부터 특색있는 책을 내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세계문학전집 시장의 경우 신작 유통기간과 상관없이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엔 출판사들이 대표적인 거장 작품 뿐 아니라 3세계권 문학 등 잘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도 다양하게 발굴해 소개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서점, 홈쇼핑 등의 판로를 적극 활용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토닥토닥’ 따뜻한 위로를 건네다

윤세영 ‘그림자를 고호하다’전- 31일까지 갤러리D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한참 뛰어들어 돌아오는 시, 마땅히 할 것도, 함께 놀아줄 사람도 없어서일까. 웬지 우울함이 가득하다. 그 아이가 앉아있는 자리 밑에는 ‘흰색’ 그림자도 웅크리고 있다. 아이가 흘린 눈물이 그림자를 덮었을까.

윤세영씨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광주 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D에서 여는 ‘그림자를 고호(顧護)하다’전은 상처가 깊은 시대, 위로의 몸짓을 건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윤씨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웅크린 그림자’ 등 작품 20여점이 선을 보인다.

작가는 작품 곳곳에서 누구에게나 있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의 손을 끌어 당겨 일으켜 세우고 보듬고 토닥인다.

반짝거리는 눈물을 표현하기 위해 은가루를 써 흰색 그림자를 만들어내거나 손톱으로 긁어 자욱한 빗줄기를 작품에 집어넣은 작가의 세심함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빗소리는 작가가 직접 녹음한 것으로, 작품



‘웅크린 그림자’

감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작가의 배려다. 윤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네 차례의 개인전을 열고 수차례의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문의 062-222-8011.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폴리’ 후보지 11곳 공개

시민협의회 지역민 의견수렴- 상징·지역·역사성 감안

광주시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올해 추진할 ‘2012 광주폴리(Polly) 프로젝트’가 조성될 후보지 11곳이 공개됐다.

총감독으로 선임된 독일 출신 니콜라우스 허쉬(Nikolaus Hirsch)프랑크푸르트 슈테델슐레 건축대학장이 제안한 것으로, 향후 ‘광주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 등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7일 지역 사회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주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열고 ‘2012 광주폴리’ 조성 장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폴리 프로젝트’ 전시 큐레이터로 선임된 천의영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니콜라우스 허쉬 감독이 상징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감안하고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제안한 11개 장소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부경찰서 인근 부

지 ▲아시아 문화전당 앞 분수대 지하 ▲광주천 ▲광주공원 ▲경양방죽 ▲광주역 광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남로 가톨릭센터 ▲양동시장 ▲전 직립자병원 ▲광주지하철 등이 제시됐다.

특히 허쉬감독이 내놓은 장소 중 광주 지하철 객차 1량 내부를 통째로 활용, ‘움직이는 폴리’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참신하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동부경찰서 인근 부지와 경양방죽의 경우 아시아문화전당 조성사업, 미래 지역 자산을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또 대인광장과 학동 8거리 등도 폴리 조성 장소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비엔날레재단은 향후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장소에 대한 자료 보완 및 검토 등을 거쳐 장소를 압축해나가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온리워크’

## 각양각색의 음악에 가을을 입히다

피아니스트 조현영 독주회, 내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조현영 독주회가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조씨는 이번 연주회에서 스페인 작곡가 안토니오 솔레르의 ‘소나타’와 베토벤의 유명한 소나타 ‘템페스트’를 들려준다. 또 인상주의 작곡가로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드뷔시의 ‘기쁨의 섬’, 거장 라흐마니노프의 ‘Moment musical’을 연주한다.

전남대를 거쳐 필름음악, 라이프프리 국립음대 박사과정, 마스트리트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조씨는 지난 2004년 귀국후 개인 독주회와 한국·벨기에 수교 110주년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회에서

연주했다. 현재 전남대·조선대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C. N 피아노, 광주피아노 회원으로도 활동중인 조씨는 클래식 음악 전용 감상실 ‘다락’에서 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도 진행하고 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10-66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 1등 맛집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